

GOSPEL POWER

GOSPEL POWER_2022. March. Vol. 08

2022 표어
기도로 돌파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요15:7



[은혜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인교회

No. 8 | March 2022

CONTENTS

03 임직자를 세우며

이 종 규 담임목사

04 임직예배

08 임직자 소개

명예장로 / 명예권사 / 명예안수집사
권사 / 안수집사

16 임직자 간증

김규석 함몽인
김순희 변경옥 이상애 김희자 박찬희 이현자 최선희 이육례
한기출 신승혜 김양임 송명순 이미란 김옥희 김선자 홍일순 최경숙
정근억 박수연 성기철

38 새가족 소개

최혜빈 성도

40 간증문

맥체인 성경의 유익 _ 이일남 집사
성경 암송으로 모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갑시다 _ 최광숙 집사
성경 이어쓰기 _ 진관두 장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 큐티- _ 최미성 집사
목자의 마음 _ 박윤미 집사

46 오후방송예배

발행일 | 2022년 4월 10일
기획 | 충인교회
발행인 | 이종규
편집실무 총책임 | 이종규

임직자를 세우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12:4~5절)



이 종 규 담임목사

코로나의 거친 도전이 멈춰지지 않은 한복판에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뻐해야 할 임직예배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임직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게 됨은 우리 충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익숙해진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참 많은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암송, 맥체인 성경읽기, 큐티, 성경이어쓰기, 충인교실을 통한 교리공부, 성경의 이해를 위한 책별반' 등의 말씀사랑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대면하며 함께 하지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는 양육의 시간을 갖게 되어 내적으로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그리고 명예안수집사로 추대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음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지며, 여러분을 세움으로 우리 충인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2. 3. 11일 임직감사예배를 준비하며

임 직 예 배

집례 | 이종규 목사

기 원 | 집례자

찬 송 가 | 323장 | 다같이

1.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 아꼐 골짜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 도 | 김 용 일 장로(장로 부회장)

성 경 봉 독 | 요12:24 | 김 선 일 목사(지방회서기)

찬 양 |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씬 선 포 | “주님의 간절함이 들려진다면” | 김 진 수 목사(지방회회장)

명예장로 · 명예권사 · 명예안수집사 추대

추대를 위한 기도 | 윤 준 집 선임장로

소 개 | 집례자

추대받는 이: 명예장로 - 김규석, 함몽인(2명)
 명예권사 - 전찬희, 이계호, 박순자, 유옥순, 육인정, 김정숙, 김정희,
 남궁혜란, 방춘자, 박숙자, 박영신, 이정화, 엄옥순, 이애연,
 박영란, 주순옥, 최순예, 김정자, 김건옥, 박희자 (20명)
 명예안수집사 - 이능우, 이기원(2명)

추 대 사 | 집례자

김규석, 함몽인 장로는 본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교단헌법 41조 8항에 의거하여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 포 |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규석, 함몽인 씨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의 명예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추 대 사 | 집례자

전찬희 씨 외에 19명은 본 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교단헌법 제40조 4항에 의거하여 명예권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 포 |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찬희, 이계호, 박순자, 유옥순, 육인정, 김정숙, 김정희, 남궁혜란, 방춘자, 박숙자, 박영신, 이정화, 엄옥순, 이애연, 박영란, 주순옥, 최순예, 김정자, 김건옥, 박희자)씨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의 명예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추 대 사 | 집례자

이능우, 이기원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교단헌법 제39조 5항에 의거하여 명예안수집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 포 |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능우, 이기원 씨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의 명예안수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기념패와 선물 증정

권 사 취 임

취임권사를 위한 기도 | 진 관 두 장로

찬 송 | 595장(1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구원 언도록 잘 인도함이라

임직자소개 | 집례자

김선자, 김순희, 김양임, 김옥희, 김희자, 박찬희, 변경옥, 송명순, 신승혜
 이미란, 이상애, 이육례, 이현자, 최경숙, 최선희, 홍일순, 한기출 (17명)

서 약 | 집례자, 임직자

1.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2.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과 교리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3.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4.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시에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5.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6.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공 포 |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선자, 김순희, 김양임, 김옥희, 김희자, 박찬희, 변경옥, 송명순, 신승혜, 이미란, 이상애, 이육례, 이현자, 최경숙, 최선희, 홍일순, 한기출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의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축복기도와 기념패 증점

집사 안수

안수집사를 위한 기도 | 최 승 호 장로

찬 송 | 595장(2절)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임직자소개 | 집례자

박수연, 정근억, 성기철

서 약 | 집례자, 임직자

1.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2.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 하십니까?
3.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 하였습니까?
4. 본 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5.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희생을 각오하며, 평생토록 기도생활에 힘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안 수 례 | 안수위원(총인교회 당회원 일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수연, 정근억, 성기철 씨에게 주의 몸 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며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공 포 | 집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수연, 정근억, 성기철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의 안수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기념패 증정

축하와 인사

권 면 | 피 중 호 목사

축 사 | 김 승 범 목사, 이 근 택 목사

축 가 | “주의 은혜라” – 신옥녀, 정창숙, 신승자

인사와광고 | 임직준비위원장 윤 준 집 장로

헌신의고백 | (일어서서) 다같이

집례자 :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임직자 : 권사와 안수집사로 임직한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회 중 : 주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가의 길을 걸겠습니다.

집례자 : 거룩하신 주여, 직분이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임직한 사람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임직자 : 저희 임직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회 중 : 주여, 우리 모두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집례자 : 성도들이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다같이 :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멘

교 단 가 | 다같이

1. 복음의 선구자들 터 닦은 교회 수난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이 이어나가자
2.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온누리에 큰 빛 발한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3. 빛과 소금 되라하신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받아 길이 살리라

축 도 | 염 윤 호 목사

광 고

1. 행복한 임직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바쁘신 중에도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임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나가실 때 참석하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심각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식사대신 내빈들께 식사비를 준비하였습니다.

| 명예 임직자 단체 |



| 명예장로 |



명예장로 김 규 석



김규석 명예장로 가족



명예장로 함 몽 인



함몽인 명예장로 정창숙 권사 부부

| 명예권사 |



김건옥 명예권사



김정숙 명예권사



김정자 명예권사



유옥순 명예권사



육인정 명예권사



이계호 명예권사



이애연 명예권사



김정희 명예권사



남궁혜란 명예권사



이정화 명예권사



전찬희 명예권사



주순옥 명예권사



최순예 명예권사



박숙자 명예권사



박순자 명예권사



박영란 명예권사



박영신 명예권사



박희자 명예권사



방춘자 명예권사



엄옥순 명예권사

| 명예안수집사 |



이기원 명예안수집사



이능우 명예안수집사

| 임직 후보자 단체 |



| 권사 취임 |



김순희 권사



변경옥 권사



이상애 권사



김희자 권사



박찬희 권사



이현자 권사



최선희 권사



| 임직자 소개 |



이육례 권사



한기출 권사



신승혜 권사



김양임 권사



송명순 권사



이미란 권사



김옥희 권사



김선자 권사



최경숙 권사



홍일순 권사

| 안수집사 |



성기철 안수집사
청소년부 부장
초등학교 교사



정근억 안수집사
찬양 및 방송실 담당
강원대학교 교직원



박수연 안수집사
태산자원
교회카페리모델링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21:36)



김규석 명예장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한다.

운동경기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몰아붙여서 승패를 매듭지어야 하고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상대 쪽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상대의 흐름을 끊고 우리 팀의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승기를 잡았다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막고 내정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영적 흐름이 한번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다. 어제의 부름에 취해서 오늘 잠깐 기도의 문을 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상대도 안 되는 미약한 아이성에서 참담하게 패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은 오픈 시즌에도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놓는다. 안 그러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큰일이 있을 때 갑자기 몰아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여 영적 내공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영적 승리는 오직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명예장로 추대를 받으며...



함몽인 명예장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24:15)

벌써 은퇴라니요?

저 이달(3월 2일) 만학의 꿈을 안고 영동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2017년 3월 26일 장로 장립을 받았으니까 벌써 만 5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장로로서 한 일이 없거든요!

직원회의 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에는 시급한 건축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동료 시무장로님들께 짐만 덩그러니 인계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그저 장로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집사람(정창숙 권사)과 의견 일치하여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말씀도 나누고 이곳저곳 모시고 여행도 하면서 즐거웠던 일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여생에 미약한 나의 재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님께 찬양과 악기를 이용한 봉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격려해 주신 목회자님들과 동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각별한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남편을 장로로 세우며 실족하지 않도록 불철주야 기도와 조언으로 도와준 나의 아내 정창숙 권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7절)



김순희 권사

교회는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 때 맛있는 과자를 준다고 해서 친구를 따라 두어 번 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결혼을 하면 교회에 다니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으니,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신앙이 저에게 권유했죠. 어머니께선 권사님이셨고,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에 다니셨죠. 저는 절에 다녔던 것은 아니라서 그런지 큰 거리낌 없이 신앙과 함께 주일이면 교회에 갔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잘 이겨내고 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라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서 큰 위로가 되었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에 나간 것도 어느덧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봉사를 더 많이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변경옥 권사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제 곁에서 지켜주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로 시작하는 나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임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보게 되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순수했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너무도 많았었다.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나의 오래된 일기장을 통하여 다시금 추억하게 되었다. 지금의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과연 십 수년 전의 나의 처음 믿음의 시작처럼 그렇게 순수함과 감격이 내 안에 존재해 있는가? 코로나19라는 벽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해져가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이 머리를 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시간에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보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때 언니와 동생과 함께 모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만질때가 있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통성기도가 무척이나 신기했고 또 무척이나 폭발적이었다. 나도 그때 내 귓가에 크게 울리는 ‘부르짖으라’는 예레미야 33:3의 말씀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죽을힘을 다해 젓 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주를 찾았다.

한줄의 기도 _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상애 권사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

33년 전 남편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저에게만 다니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시부모님께서 시골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다. 그러나 그 순간 반감이 들지도 않았고 가을에 결혼하여 새해부터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89년 1월 새해부터 집에서 가까운 원주 태장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놀러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낯설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순종하며 주일이면 버스를 타고 혼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금요일이면 감리교회에선 속회라 부르며 속장님을 따라 빠지지 않고 속회에배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드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 집사의 직분을 받으라는 것이다. 쫓아다니며 거절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웃음도 나오고 많이 두려워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권사님의 권유로 직분을 받고 얼마 안 되어 춘천으로 이사 오게 되어 충인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다. 믿음은 없었지만 열심히 순종으로 신앙의 어른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즈음 우리 가정에 둘째딸이 3살 되던 해 이유 없는 무릎 수술을 하게 되고 아픔과 연단을 주며 믿지 않던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 남편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면서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알고 있다. 신앙의 긴 여정 속에 권사의 직분을 앞두고 과연 받을만한 자격이 되는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보며 직분이 베풀어지는 나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세워지길 바라며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인도하신 시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임직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

나를 인도해 준 아기천사



김희자 권사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행12:8)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더 모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1시간 걸어서 30분 버스를 타고 큰 고모님 댁에 놀러 가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모님 댁에 1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과 교회에 놀러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여름방학만 되면 그곳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제일 큰 즐거움은 간식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할 때라 간식 먹는 즐거움으로 여름방학만 되면 힘든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시골마을에도 개척교회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았는데 아주 작은 창고 같은 데서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춘기가 되었고 여름방학만 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2박 3일 정도 와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아버지께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남녀가 모여서 먹고 자고 하니 교회가 아니라 연애당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께서는 가보시 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 잠을 자는데 아기 천사가 손짓하며 자꾸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도하는 데로 따라갔더니 교회였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더욱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몰래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서울로 가게 됐고 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지요. 직장을 갖는데 거기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고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고 춘천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박찬희 권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랑 자라온 대가족의 장녀로 태어났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이름난 한문을 잘 해석하며 잡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시루떡을 해 반쳐 놓고 빌어주는 그런 분으로 침술도 있어 미신을 숭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 것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의아해 하면서 말입니다.

춘천으로 결혼하여 이사를 오게 되면서 중인교회의 임영숙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일매 권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교회 식구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삶이 행복으로 변해가고 교회라면 아니라고 하던 남편도 교회에 함께 하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대학을 나와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간구합니다



이현자 권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민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임이라는 크리스천 기업에 취직하면서 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근하면 매일 예배와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여 믿음이 없던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본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사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사무실에서는 월요일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초청해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화천에 사업장을 열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많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권사 직분으로 하나님과 중인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 기꺼이 동행하시는 주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
내를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최선희 권사

모태신앙인 저는 감사하게도 평생을 군 교회에 헌신하시던 친정어머님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몸소 배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충인교회에서 27년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임신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유치부 교사부터 청소년부 교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배우며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교사의 직분이었는데 내 아이뿐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폐암으로 일찍 사망하시고 친정아버님의 교통사고 등 연이은 어려움도 공동체의 위로와 풍성한 기도로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서울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이해와 보살핌으로 아이들도 잘 자라고 일터에서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실직하였을 때도, 남편과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였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말씀 묵상으로 양육 받게 하시고 위기의 때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잠잠히 기도해 주시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할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던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욱 나누고 함께 그 풍성한 자리로 나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 기꺼이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유연 권사

저는 고향을 떠나 머나먼 춘천에서 결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고 충인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아 하염없이 눈물만 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조그마한 것도 나누며 서로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상황도 여의치 못했지만 주님은 제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충근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장으로 섬기실 때 곁에서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언제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봉사는 믿음의 집사님들과 함께 어울리며 울동과 찬양을 하면서 내 아픔도 씻어 버릴 수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며 간식을 만들면서 주님이 제게도 용기를 주셨고 사랑하신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세상으로부터의 상처와 억울함에 혼자 버티기 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지치고 상심하여 누워 있을 때에도 주님은 사랑의 집사님들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때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부짖고 주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상 속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안에 머물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12:15)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한기출 권사

저는 글썽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권사 직분을 받게 되어 간증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멋들어진 간증문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 남편이 아파 연고가 없던 춘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언교회 식구분들께서 장례식장에 와주셨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우리 며느리만 중언교회에 다닌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이때 교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짧게 교회에 나갔는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시는 중언교회 식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낸 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을 때 며느리에게 나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에 갔지만 며느리는 유치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 때라 매번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주말만 되면 딸이 있는 서울로도 망칠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목장에서 함께하자고 자꾸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목장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 뵈는 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반겨주셨습

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마음도 변화하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권사님을 도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좋은 인연을 더 많이 만났고 봉사를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실버 어르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저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목원들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적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목장식구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잘 챙기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맡아 나아가다 보니 목사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의 좋은 인연과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던 권사님, 때로는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며느리의 모습을 빌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남은 생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고자 권사 직분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직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신승혜 권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흰색 풀티에 흰색 스타킹을 신고 성탄절에 울동을 하던 어린 저의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얀색이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라면서 어느샌가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생각을 좇으면서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면 한 번씩 교회에 가고, 아니면 세상일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은 딱밤 한 대, 검진 결과 골육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렇듯 건강한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나를 옥죄어 오고 가슴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않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치료가 시작되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는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깨달아 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김양임 권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삼상16:7)

간증을 작성하면서 제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좋으시고 친밀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싶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저의 상황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완전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20년전 아들 친구의 엄마를 통해 중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리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있고 싶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얼마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주님이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없고 부족하고 못한 부분이 많은 저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주님께 순종하려 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송명순 권사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24:15)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하여 미신과 토속신앙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믿는 가정의 형부와 결혼하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교회에 가자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반응으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금촌으로 이사 오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귀한 말씀을 이제야 아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춘천으로 이사 오면서 중언교회에 등록하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만 지켰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어지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남편의 허리 디스크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가 나를 짓누르면서, 가족에 대해 불만이 늘어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 자녀, 어머님 모두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토속신앙을 믿으시던 엄마가 81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매일 주일만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성경을 일독하시고, 이독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정에 믿음의 시작인 언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니가 떠난 자리에 여동생을 권사로 세우시고 저에게까지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믿지 않는 식구들과 이웃에게 흘러보내어 모두 구원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란 권사

“내가 여호와의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34:1)

저희 가정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습니다. 평안하고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던 우리 가정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뇌성마비, 뇌 병변, 정신지체 1급인 중증 중복 장애아였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는 딸아이의 손, 발이 되어 모든 걸 다 해주어야 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가족의 삶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봄 충인교회 ◦집사님과 친정엄마(김시희 집사님)의 권면으로 충인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장애아 자녀로 지치고 힘든 마음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죄상이 가득한 심령과, 회개를 모르며 교만하게 살아온 부족함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도 수많은 기적 같은 체험들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권사 임직을 앞두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곧 제 삶이 되어 주신 직분 잘 감당해 내길 다짐하며, 하나님 은혜를 매 순간 감사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



김옥희 권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저의 믿음은 그저 남편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에 가고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일이면 남편을 따라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결혼 7년쯤 되었을 무렵 건강하던 저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100미터 이상을 한 번에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계속되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우리 남편은 오직 주 예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영월에 있는 태백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를 환상으로 보여 주시는데 구렁이가 허리를 세겹을 감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니 그 구렁이가 “나 간다” 하면서 사라진 후에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저는 **응답받던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으나 그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고쳐주신 이후 오늘 현재까지 허리의 통증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셔서 몸 된 제단에 권사의 크신 직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선자 권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저는 오래전부터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2남 1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상하는 모습이 싫어 하루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가끔 서울가는 버스를 타고 오고 갈 때에 우상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방되고 싶어 멀리 시집을 가고 싶은 차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놀리는 꿈을 꾸었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엄마께 전화를 드리면 엄마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 못한다고 교회 갈 거라 선포하고 114를 통해 순복음교회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그 길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나 믿음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 중에 충인교회를 보면서 이곳이 내가 갈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인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이 놀리고 많이 아파 교회를 찾아올 때면 하나님께서 치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변 권사님과 집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치료하심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기도가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연약한 자에게 권사에 직분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 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홍일순 권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론 하나님과의 첫 대면은 초등학교 방학 무렵 친구들과 어느 언덕 위하안 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전날 숙제로 외운 성경구절을 말하는 것이었다. 기억속에 남아있는 그 성경구절은 지금 내 신앙의 기초가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리고 내 삶에 두 번째 전도 받은 기억은 중학생 시절 내 짝은 나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였고, 지금 생각하면 그 내용이 신유나 사후세계를 다녀온 사람의 증언 등이었으며 터무니없다고 치부하며 내 안에 들이지 않았다. 이때의 기억이 주는 교훈은 전도의 시작 접근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은 고교 졸업 무렵 주변 개척교회에 언니가 아주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언니의 전도 내용은 기억이 안나나 어느 날 크리스마스 행사 때인지 구경하러 오라는 말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청년들과의 친분과 도와주기, 탁구 배우기, 성가대 앓기, 언어듣는 이야기, 간증, 밝은 분위기 등에 스며들게 되었다. 두달 다 깊이깊이 주일성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따라 타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교회는 분의 도움으로 그 지역의 지인 집에 머물게 되며, 그분들과 교회 다니면서 지내다가 빨리 집으로 발령 나기를 소망하게 되면서 매일 퇴근 후 교회에 들려 기도하길 100여 일 정도 지나 직장내의 내 지인들의 위치 조합이 나에게 유리한 틀을 형성하게 됨을 느끼며 신기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동기 중 가장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춘천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삶에 직접적인 체험은 나의 신앙의 터가 되

고, 직장 내 술 문화 등 많은 부조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한? 삶에 가깝게 살려는 자신감을 주었고, 직장 생활 38년 동안 소주 1잔 마셔본 적 없이 남의 것도 탐하지 않고, 내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며 세파에 빠져들지 않았고, 십일조도 항상 충수입 기준으로 드리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와 재정에 임했습니다. 그 밖에도 업무 수행 중 주로 중요한 날씨에도 꼭 필요시 기도와 간구로 좋은 날을 경험하고, 생활 속 고비에서도 짧은 기도로 위로를 경험하며, **나의 어려움은 순간순간 기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여 수시로 방황하는 이 딸과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균형이 깨지고 불편해지는 건강 상태가 되어 이모저모로 수시 병원 저 병원 방문과 불규칙한 생활과 함께 지낸 지인, 성경 지식 등 인식에서 멀어지며 초기화가 된 듯 알던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 권사 임직 후보에 들며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와 바울서신으로 말씀을 쓰며 말씀을 되새기고, 삼삼오오 주변 돌기 참여로 자연에 눈에 담고 교인들과의 교제로 신앙의 소통을 나누며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이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적 친밀감에 비해 외부 들어내는 표현에 많은 수줍음과 주저함이 있지만 이제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즐겁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찌어다!

“아굽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43:1)



최경숙 권사

30년 전 저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저는 마을 골목길을 지나다 허름한 상가 2층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이끌려 한참을 기다려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춘천에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쉬고 있을 때에도 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닿아 2015년 3월 충인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으며, 권사의 직분을 받으라 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정말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멀쩡히 건강하던 딸아이가 호흡곤란과 손발이 뒤틀리며 응급실을 세 번이나 실려 가면서 저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오직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한숨 돌리려는데 이번엔 막내가 코로나19 양성입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민지 않는 남편은 목장 예배나 교회 일에 관한 일엔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니 사탄이 저를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남편과는 권사 임직에 대하여 상의할 수도 없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권사 임직에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심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길



정근억 안수집사
찬양 및 방송실 담당
강원대학교 교직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인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안수집사 피택을 받은 정근억 집사입니다.

지난 가을 교회를 통해 안수집사 피택을 전달받았을 때 아직은 제 스스로가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껴 부담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동안 가족, 직장 문제로 교회와 떨어져 있었고 저보다도 훌륭한 선배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인교회는 저와 인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한 연도가 제가 태어난 1977년이구요. 부모님과 춘천으로 이사를 나온 초등학교 5학년인 1989년부터 이곳 충인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중·고등부를 거쳐 청·장년까지 저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 준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것도 중학교 3학년 이국 충인교회 여름수련회 때였습니다. 청년부를 거쳐 결혼을 하고 이젠 큰 딸 예원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여 중등부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고 섬겨야 할지 걱정도 되고 부담감이 있지만 교회 윗분들을 잘 모시고 배우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교회와 담임목사님, 교역자님, 성도님들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감당할 직분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출36:2)



박수연 안수집사
태산자원
교회카페리모델링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생활도 잘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역도와 레슬링 선수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이 소홀했고, 26살에 제일 장로교회에서 대형 버스기사로 취업하여 강문선 안수집사님 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중인교회도 강집사님의 인도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고물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 현장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점점 나이들어 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생활이 나태해졌습니다.
- 미약한 손재주지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아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수22:14)



성기철 안수집사
청소년부 부장
초등학교 교사

아이를 양육하며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아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데 있다. 주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 졸이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떼쓰며 살아간다.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줄 때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정도는 혼자 다녀올 수 있도록 한 후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뒤따라가 본다. 아이는 커다란 모험 앞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대감을 받을 때지만 금방 어려움을 만난다. 특히 차길에서 멈칫거린다. 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나 빨리 자신에게 다가올지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린다. 사랑에 눈먼 아빠는 얼른 달려가 아이의 손을 잡는다.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은 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아이는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아빠가 서면 서고 아빠가 이끌면 간다. 길을 건넌에 있어 두려움은 없다. 그저 아빠 손을 잡고 있을 뿐이다. 아빠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 나를 떠올린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신다. 그 손을 잘 잡고 있으면 세상 안전하다. 언제 어디서 커다란 위험이 나타나 나를 덮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아이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간다.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단다. 외동이로 크며 부족함이 살아가건만 꼭 필요한 것이 있단다. 정작 상점에 가면 아이는 무엇을 살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이미 집에 많이 있는 물건을 또 사려고 하거나 악덕 상술이 뵈히 눈에 보이는 조악한 물

건을 고르곤 한다. 아빠는 그런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주위를 둘러보다 아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어쩌면 아이가 고른 것보다 훨씬 비싸지만- 물건을 골라 아이를 설득한다. ‘이 물건이 네가 고른 것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이걸 사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단호하다. “이 물건이 제-일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빠는 안다. 아이가 고른 물건이 곧 망가진다는 것을, 아이의 잠깐의 호기심을 받다가 곧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물건이라는 것을 아빠는 안다. 또 주님을 떠올린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나는 씩씩대며 따진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당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왜 해주시지 않냐며 주님께 따진다. 고집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주님께 떼쓰는 나와 겹치며 쓴웃음을 짓는다.

주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내가 충분히 주의의를 기울이는 것과 감히 비할 수 없는 지혜와 힘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은 지혜로 고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기에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저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며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믿음의 회복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최혜빈 성도¹⁾

■ 교회가 익숙하다 못해 습관과도 같은 “모태신앙” 사람들을 보고 더러는 “못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스스로가 “모태신앙”인지 “못해, 신앙”인지 생각조차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인생의 전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20대 시작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떠나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는 그간의 영성 훈련으로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었기에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믿음은 온전히 제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 든든한 동역자들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새로 옮긴 교회에서 예배참석뿐만 아니라 말은 봉사와 모임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에 집중을 못 하면서 점점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졌습니다. 열정은 서서히 사라졌고 새롭게 말씀의 도전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만 버티다가 신앙이 금세 무너졌습니다. 혼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의 오만함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어느 날 엄마를 따라 옷 가게에 놀러 갔다가 최미성 집사님과 잠시 교제하며 교회에 대한 제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사님께서 충인교회에 나오기를 몇 번 권유하셨지만, 집과 멀기도 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찾아야 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서 주저했습니다.

■ 하지만 내심 예배가 궁금했던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새벽예배에 먼저 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은 이미 익숙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새롭게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니 시국이 시국인지라 교회마다 오프라인 예배에 제한이 있고 이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 될 때가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리웠는데 충인교회는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있어서 언제나 마음껏 찾아가 예배할 수 있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고, 충인교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어머니 정미현 권사님과 함께 2. 27일에 등록하였습니다.

맥체인 성경의 유익

이일남 집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목사님께서 새로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밴드를 열어주셨습니다.

‘맥체인 성경’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한 맥(脈)+체인(chain).

아~~ 성경의 맥을 찾아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구나~~ 기특한 나를 앞세워 무작정 밴드에 문을 두드린 지 몇 분 되었을까.

나의 생각은 맥체인 목사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붙어진 시선은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맥체인 성경의 길라잡이에 오롯이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금금해졌습니다. 매일의 구약, 신약 각 두 장씩 모두 네 장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독할 수 있다고 하니 더 금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통독의 의미만 두고 하루의 분량을 착실히 읽는 수행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구약, 신약의 각 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중심 주제를 알기 위해 구약, 신약 네 장에서 공통된 말씀이나 단어 등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구약성경에서 주제를 묵상하고, 다음 신약을 읽을 때 연관된 주제를 찾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구약성경에서 찾지 못한 주제를 신약성경에서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되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제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과 공유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암송으로 모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갑시다”

최광숙 집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19:7-10절)

이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 암송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과 도전이 됐습니다. 전에는 몇 번 외우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익숙한 것만 외우려다 포기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뭘까” 한절 외우기도 힘든데 하며 망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13장을 많이 읽었지만 정작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 몇 절만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요. 사랑의 근본 가치 말씀인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제일 충격적인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몇 절만 외우는 것보다 13장 전체를 외우니 느껴지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방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기 전에도 외우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외우고 또 다 외웠다고 자신 있게 녹화하려고 핸드폰 앞에 앉으면 몇 자씩 틀리고 다시하기를 아마 1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뎡가는 술술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나이도 먹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도전하니 되더군요. 그런데 있잖아요 외우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머리가 오래 기억해 주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힘내시고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은 맛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암송 노트를 준비해서 꾸준히 다시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려요. 제가 외우는 노하우 조금 알려드릴게요. 긴 문장을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라서 외우시고 반복성과 연관성이나 문맥을 잘 생각하고 외우시고 메모지에 외우기 쉽게 써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하느냐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은혜의 경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우면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함을 체험하는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외우고 싶습니다. 아멘

성경 이어쓰기

진관두 장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2021년 2월 16일 부터 성경 이어쓰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어려워 졌고 코로나 방역 규제로 교회에서 주일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목상할 수 있도록 성경 이어쓰기 2월14일 주일예배 시간에 16일부터 시작 된다고 선포 하셨다.

2월 16일 06시경 충일교회 밴드에 시편 50편 이어쓰기가 시작되었다. 권사님과 집사님들 한 절 한 절 이어쓰기가 은혜가 되어 2월 17일 사순절 제1회 마가복음 1장1절부터 이어쓰기가 시작 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번째로 2절을 올리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어 쓰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되어 있어 그 다음부터 알람시간을 7시로 설정하였다. 아침 식사하고 나서 7시 알람이 울리면 이어쓰기를 올리고 일터로 나간다. 하루 일과를 시작 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쓰기 밴드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시간이 더 큰 은혜가 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루종일 말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성경 이어쓰기 올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최미성 집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채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40:31)



세밀한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니 하나님을 알고 닮고 싶은 자 어찌 그 말씀을 듣고 읽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매일 공급받으며 확인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사55:4)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의 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은 그날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며 고단한 삶에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는 충전과 힐링하는 식탁의 자리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세밀한 음성...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신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인물들을 보며 나의 은밀한 죄를 볼수 있도록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가. 이토록 나의 죄가 많았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 부끄러운 고백을 항상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종에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사 43:25)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마음판에 새겨진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은 견고해지며 나의 삶을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귀하고 거룩한 교제를 날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날마다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나 깨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 최미성 집사: 찬양대 대장, 글파 찬양팀장

‘충인교실’을 공부하며

이경민 권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119:103)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세계적인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임에 한정적인 교회 출석과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에 의한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과 영적인 나태함이 서서히 내 생활을 덮고 있을때 쯤 이종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 방법으로 밴드에 활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친숙하지 못했던 분위기에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충인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충인교실은 믿음 생활에 필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신앙 연륜에 관계 없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익한 코너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매시간 빠뜨리지 않고 성경책의 페이지를 넘겨 가며 과제에서 요구하는 구절들을 찾아 한자 한자 기록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마치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를 적는 것 같은 설레임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번 과제가 끝나고 다음 과제가 벌써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나온 시간들 중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쳐다만 보면 졸립고 지루했던 말씀들이었는데 지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더 다니이다”(시 119: 103) 라고 다가 옵니다.

때로는 잊고 있던 과오들을 생각나게 하여 회개의 심령도 주셨습니다. 들어 보았고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읽고, 기록하고, 암송했던 말씀들을 모두 깨닫고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순례자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 밴드를 통해 이루어는 교리성경공부 교실입니다.

목자의 마음

드림목장 박윤미 집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23:1-3)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이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다가 목자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목자의 마음에 대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11월 즈음이면, 목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졌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목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목요일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모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드러지는 목장에 배를 위해 출장을 다녀와서 피곤하고, 몸이 아픈데도 목장예배를 참여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보며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쉼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며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목자가 되고 나니 좋은 찬양을 들으면 함께 공유하고 싶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슴 아파하며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좋은 것은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의 부족함을 채워 주고, 세워주며, 목자가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주며, 감동을 주는 ‘드림목장’ 집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렇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밴드’에서 모이는

오후방송예배

이종규 목사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멈추어 있던 ‘오후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2021. 5. 20일에 시작된 밴드를 통해 모이는 ‘방송예배’의 출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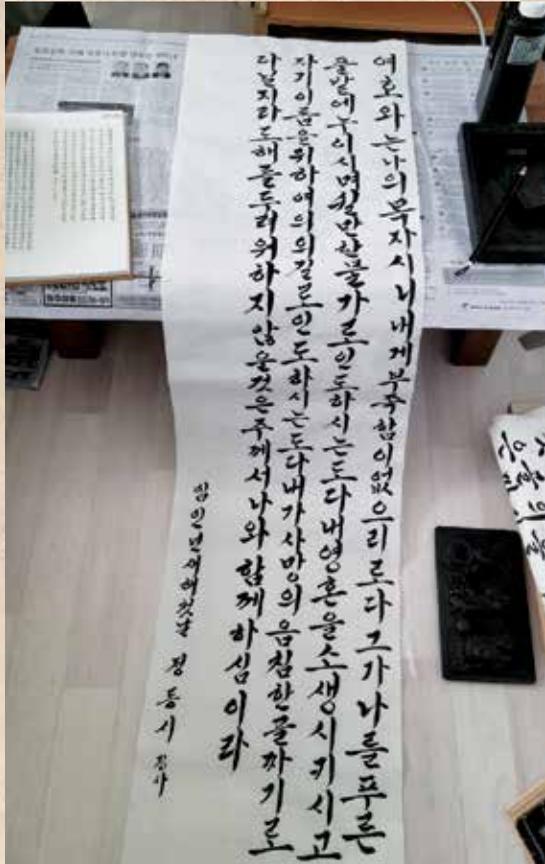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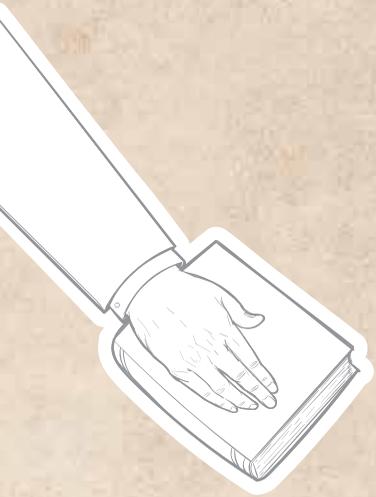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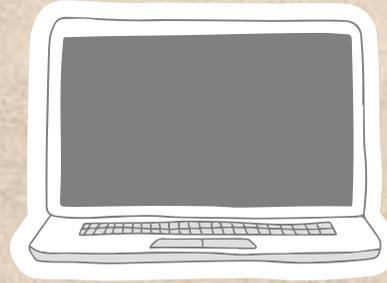
방송예배의 특징상 일반예배의 형식을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들을 초청하여 담임목사와 대화를 통하여 풀어가는 ‘간중예배’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당원들, 각 기관의 임원들, 목장들의 순서로 이어진 간중예배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횟수가 거듭되자 방송예배에 출연하여 간중할 만한 성도들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암송을 위한 예배로 전환되었다. 어떤 성도들은 암송할 말씀이 한 번에 너무 길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힘들면 그중에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며 이 암송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

돌아보니 그동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이 적지 않았다. 시편 1편, 23편, 42편, 마태복음 7장, 고전 13장, 빌립보서 2장, 로마서 5장, 12장 등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다.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며 그 암송영상을 밴드에 올림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우리가 대면예배로 전환되어도 암송을 위한 방송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밴드를 통한 말씀암송 모임에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총인교회 새성전 조감도

섬기는 사람

담임목사 : 이종규

부 목 사 : 김흥영

전 도 사 : 장태성

시무장로 : 윤준집 진관두 함몽인
최승호 이기삼 정동수

명예장로 : 정충근 홍병철 박동양
이인규 김규석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이재열

1부 예배 반주 : 이석희

2부 예배 반주 : 김재미 김도윤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주일오전예배 :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방송예배 : 오후 2시

수 요 예 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

영 · 유치부 : 주일 오전 11시

어 린 이 부 : 주일 오전 11시

청 소 년 부 : 주일 오전 9시 50분

청 년 부 : 주일오전예배 후



[온혜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

24278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11-1 | <http://www.chpower.org>

전화 : 033-242-4812 | FAX : 033-242-4813